

수필이 있는 풍경 사진



권영주
히트 스캔 심장내과 원장
순천향의대 명예교수

오색연등과 함께

진리의 빛을 세상에 알리고 자기 마음속의 염원이 오색연등의 빛으로 변하여 우리들 주위를 밝게 한다.

부처님 탄신 전 후로 우리들은 오랫동안 연등의 풍습으로 부처님의 진리를 방편으로 연등으로 밝히고 면면히 전해 내려오고 있다.

오색연등이 가지런히 매달려 있는 풍경이 아름답다.

망울망울 저 있던 꽃송이도 이젠 한껏 만개해 오색연등과 어우러져 자연 생명체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한다. 아름다움은 그 무엇일까 바로 그 마음인 것이다.

모든 것이 마음속에서 이뤄진다는 진리 속에서 일체의 법은 오직 마음일 뿐이며 마음이 바로 부처이고 마음이 법이며 마음은 구할 수는 있으나 얻을 수는 없듯이 참 어려운 것이 마음 공부라 아니 할 수 없다.

그러나 우리들의 바쁜 마음은 팔정도의 진리와 함께 할 것이다.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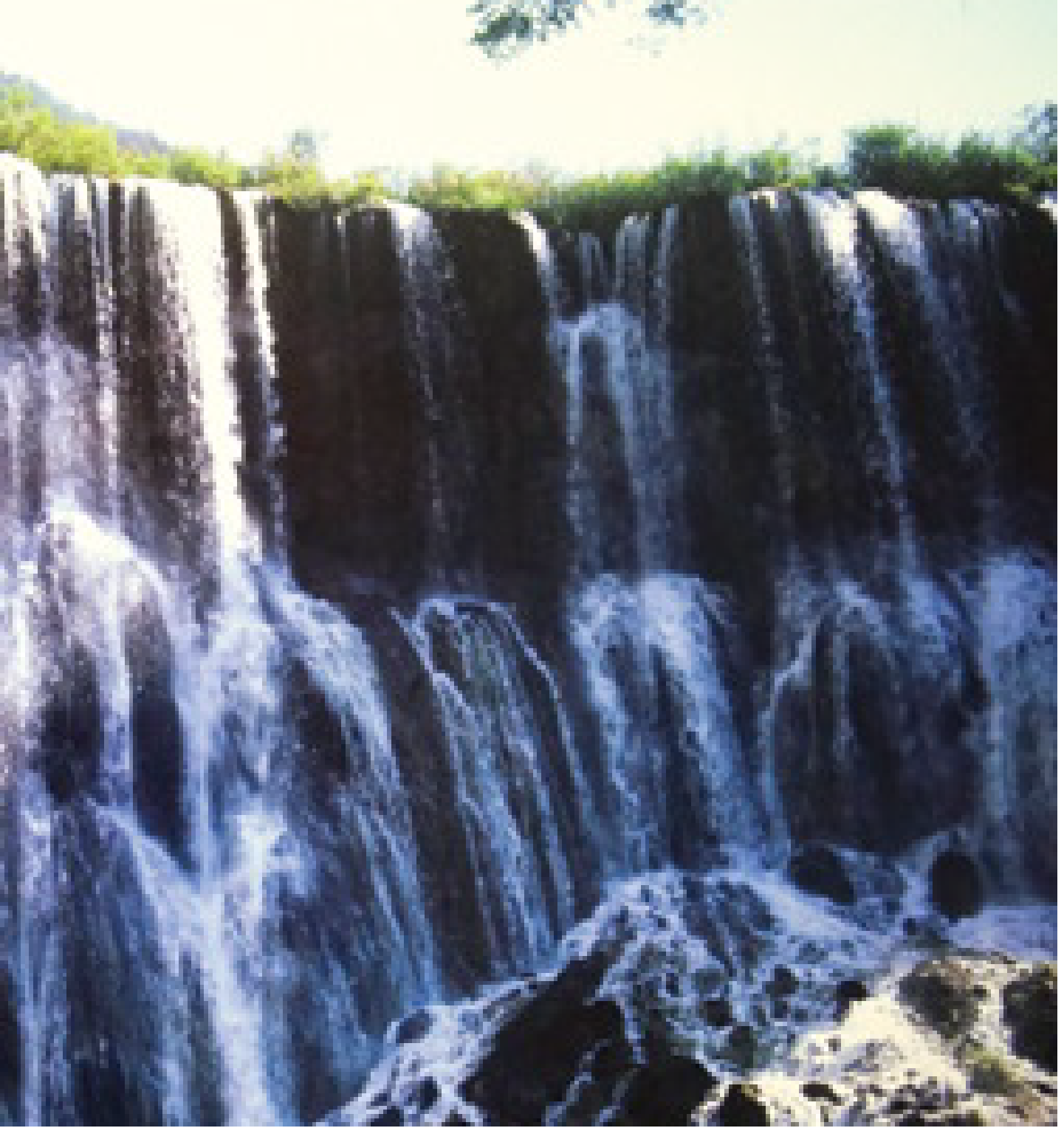


구채구의 폭포와 함께

어느덧 일찍 찾아온 한여름의 더위 속에서 시원스럽게 떨어지는 폭포의 물줄기를 보고 있노라

면 우리들의 지친 마음도 더위도 모두 사라지고 차분한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온다.

구채구는 중국의 티벳 근처에 있는 해발 약 3000m 고산지대의 세계 자연 풍경구로서, 경



이로운 자연의 물과 숲이 모두를 압도한다.
그러나 여행객은 고산병 증상인 두통, 메스꺼움, 현환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해 두는 것도 좋겠다.

중국장족이 사는 9개의 마을이 있는 뜻인 구채구는 자연의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다양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새삼 느끼고 그 경이로운 풍경에 놀란다.